

# 전북 관광, 홍콩서 현지인 눈길 사로잡다

### 홍콩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14개 시군과 공동 관광홍보관서 전통문화·미식·체험 연계한 복합 마케팅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가 12일부터 15일까지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홍콩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14개 시군과 함께 공동 관광홍보관을 운영하며 현지 관광객 공략에 나선다.

특히 오는 14일에는 주홍콩한국문화원에서 전북 단독 소비자 대상 관광홍보 행사를 열어 전북만의 전통문화와 미식을 선보인다. 이번 해외 마케팅은 급증하는 중화권 자유여행 수요를 공략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홍콩 국제관광박람회(ITTE Hong Kong: International Travel Expo Hong Kong)는 홍콩 최대 규모의 관광 전문 박람회로, 60개 국가와 지역에서 500개 사가 참여하고, 7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는 글로벌 관광 플랫폼이다.

전북자치도는 135㎡ 규모로 조성된 한국관 내에 일부 공간을 활용해 전북관광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14개 시군과 연계해 공동 마케팅을 펼친다.

공동 홍보부스에서는 전북의 대표 관광지인 추계, 미식, 전통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현장 여행 상담과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 방문객들은 전북 여행을 주제로 한 '퍼즐 맞추기'와 관광엽서 쓰기, SNS 구독 이벤트 등에 참여하며 전북의 관광 자원을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 14일에는 전북자치도가 주홍콩한국



전북특별자치도가 12일부터 15일까지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홍콩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14개 시군과 함께 공동 관광홍보관을 운영하며 현지 관광객 공략에 나선다.

문화원과 협력해 전북만의 색다른 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행사는 전북 관광설명회를 시작으로, 전주비빔밥과 애호박전을 직접 만들어보는 한식 쿠킹클래스, 고창 복분자, 남원 김부각 시식, 한지 공예(부채와 갑첩침 만들기)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하루 동안 총 2회차로 나눠 100여 명의 현지 소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현지 소비자와의 교감을 통해 전북 관광의 인지도를 높이고, 현지 여행

사와의 교류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북의 전통문화와 체험형 미식관광 콘텐츠를 접목한 전략은 문화체험을 선호하는 중화권 관광객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이번 국제관광박람회를 계기로 전북자치도는 중화권 개별관광객(FTT)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해외 마케팅 전략을 가동한다. 문화와 체험 중심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류에 관심 많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타겟팅 홍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공동 상품개발과 정보 공유를 추진하며, 관광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정식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은 한국의 전통문화와 자연, 음식이 살아 숨 쉬는 관광 중심지로, 특히 개별 자유 여행객에게 매력적인 여행지"라며 "이번 홍콩 행사를 통해 전북만의 정체성과 매력을 알리고, 더 많은 중화권 관광객들이 전북을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마케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도, 저출생·고령사회 정책 '우수' 평가

### 337개 사업 중 85.1% 목표 달성·예산 집행률 99.2%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4년 저출생·고령사회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며 정책 추진성과를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지자체의 자체사업 총 6,444건을 대상으로 사업성과(목표달성률), 예산 집행률, 대표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전북은 337개 자체사업 가운데 287건(85.1%)이 성과 목표의 90% 이상을 달성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81.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예산 집행률도 전북은 총 2조 8,807억원 중 99.2%를 집행해 전국 평균인 97.4%보다 높았으며, 17개 시도 가운데 상위권을 기록했다.

정책의 질적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년의 생애주기별 단계(취업→주거→결혼→출산→육

아)에 맞춘 맞춤형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서비스 강화는 저출산 극복의 실효적 대책으로 호평을 받았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북형 저출생 대책'인 '희망High, 아이High' 프로젝트(4개 분야 7개 사업)를 바탕으로 올해도 실효성 있는 신규 과제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시군 공영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한 다자녀가정 할인·면제 확대를 추진 중이며, 관련 제도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청년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인 청년 유출입 대응 TF를 운영중에 있으며, 이후 도출된 주요 과제들은 전북형 저출생 대책과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 전북 중기 글로벌 시장 진출 '1:1 상담회' 성황

### 전북자치도-KOTRA,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성료

### 13개국 21개사 바이어 방문... 도내 식품기업 70개사 참여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 전주 그랜드 힐스호텔에서 도내 중소 식품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1:1 비즈니스 매칭을 위한 '2025 전북 수출상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자치도와 KOTRA 전북지원본부의 공동 협업사업으로, 지난 10~13일 경기도 일산에서 열린 '2025 서울푸드(SEOUL FOOD)'와 연계해 마련됐다.

서울푸드에 참가한 글로벌 바이어 중 일부는 전북으로 직접 초청, 도내 식품기업들과 심도 있는 개별 비즈니스 상담을 이어갔다.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미국, 독일,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등 13개국에서 총 21개 해외 유망 바이어사(28명)가 참가했고, 전북을 대표하는 식품 중소기업 70여 개사가 참여해 열띤 수출상담을 벌였다. 이번 매칭은 바이어 관심 품목과 국내 기업의 주력 제품을 사전에 매칭한 '1:1 맞춤형 상담' 방식으로 이뤄져, 실질적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였다.

상담회 현장에서는 지역 특산물 기반 가공식품, 기능성 식품, 즉석조리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북 식품이 소개되며,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만호 기자

## 새만금개발공사-한·아프리카재단, 상호 협력 강화한다

### 아프리카 지역 개발사업·기업 교류 협력 위한 기반 마련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는 12일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홀에서 한·아프리카재단(이사장 김영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개발사업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와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은 공사 나경균 사장과의 한·아프리카재단 김영채 이사장, 카이스 다라지(Kais DARRAGI) 주한튀니지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 아프리카와 새만금 지역 내 기업 간 상호 시장 진출 지원 및 지역 산업 육성 환경 조성 △ 아프리카 지역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 인적·물적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 그 밖의 기관 업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 이후 참석자들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 현장과 새만금 홍보관을 차례로 방문하며 새만금 사업의 추진 현황과 비전 등 주요 개발 계획 등을 공유받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채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은 "새만금은 글로벌 협력의 플랫폼이 될 잠재력을 지닌 지역"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프리카와 한국 간 경제 협력이 더욱 실질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새만금이 아프리카와의 국제 교류 거점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글로벌 협력 사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는 12일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홀에서 한·아프리카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편, 한·아프리카재단은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한국과 아프리카 간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로 설립되었으며, 다양한 민간 협력 프로그램과 교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 전북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 잔류농약 집중 점검

### 8월 말까지 정밀 분석 진행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농산물에 대한 농약 오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8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집중적인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공영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등 유통현장에서 판매되는 상추, 깻잎, 열무, 근대 등 여름철에

부적합 판정 빈도가 높은 채소류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총 345종의 잔류농약 성분에 대해 정밀 분석이 진행된다.

연구원은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확인될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전국 시도 및 생산지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문제 농산물에 대해 신속한 압류·폐기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부안군 공고 제2025-1055호

## 부안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및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공청회 개최 공고, 부안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도로) 결정(안) 열람 공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7조에 따라 '부안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및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의제되는 부안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도로)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법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 1. 부안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및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의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가. 공청회 개최 목적  
- 부안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및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나. 개최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2025. 06. 27.(금) 14:00 ~ 16:00  
나. 장 소: 부안읍 행정복지센터 회의실(2층)

다. 부안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개요  
• 공간적 범위: 부안군 전지역  
•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2019년 / 목표연도 2029년  
• 내용적 범위: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 기초조사 및 분석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등  
-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방안 등

라.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개요  
• 공간적 범위: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62-3번지 일원 83,582㎡

-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2025년 / 목표연도 2029년
  - 내용적 범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분석
    -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
    - 주택정비 활성화 및 갈등과 사업관리 방안
2. 부안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도로) 결정(안)에 관한 사항  
가. 군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등급	구도	구도	면적(㎡)	기원	종원	사용 형태	주요 목적	비고			
신설	소도	3	가	4	국지 도로	57.4	부안읍 서외리 441-4	부안읍 서외리 443-12	일반 도로	부안읍 서외리	급회	
신설	소도	3	나	4	국지 도로	119.7	부안읍 서외리 432-24	부안읍 서외리 71-17	일반 도로	부안읍 서외리	급회	
신설	소도	3	다	4	국지 도로	52.5	부안읍 서외리 71-18	부안읍 서외리 67-5	일반 도로	부안읍 서외리	급회	

### 나. 군계획시설(도로) 결정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	소도3-가	• 도로 신설 - 기 경: 부안읍 서외리 441-4 - 종 경: 부안읍 서외리 443-12 - 규 모: B=4m, L=57.4m	• 행차로 인한 건축허가 불가로 행정소 및 주거지 밀집지역의 안전 관리 전담을 도모하기 위한 군계획시설(도로) 신설
-	소도3-나	• 도로 신설 - 기 경: 부안읍 서외리 432-24 - 종 경: 부안읍 서외리 71-17 - 규 모: B=4m, L=119.7m	• 행차로 인한 건축허가 불가로 행정소 및 주거지 밀집지역의 안전 관리 전담을 도모하기 위한 군계획시설(도로) 신설
-	소도3-다	• 도로 신설 - 기 경: 부안읍 서외리 71-18 - 종 경: 부안읍 서외리 67-5 - 규 모: B=4m, L=52.5m	• 열차 및 복합편의시설의 원활하고 안전한 전담을 도모하고 기존 군계획시설(도로)의 가도체계와 연계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군계획시설(도로) 신설

다. 군관리계획 결정(안) 관계서류: 실용생략 열람장소 비치

2025년 6월 13일

부안군수